

롯데카드 해킹 데이터 첫 신고의 100배 유출

이달 1일 1.7GB 데이터 유출 신고
당국 조사 결과 최대 200GB 추산
4월 SKT 피해 규모 9.8GB의 20배
통신-보험 이어 카드까지 불안 확산
롯데카드, 오늘 사과-사고경위 발표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 당한 데이터 규모가 당초 보고된 수준의 약 100배인 200GB(기가바이트)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KT 등 통신사, SGI서울보증에 이어 카드사까지 해킹에 줄줄이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이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진 만큼 기업들이 보안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8월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200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대 200GB로 추산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로 추정된다”며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직후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빠르게 취했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달 1일 금융당국에 해킹 사고 사

실을 신고하면서 유출된 데이터를 약 1.7GB로 추산했다. 실제 유출 정보가 초기 보고 수치의 약 100배에 육박한 셈이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유출된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는 총 9.82GB였다. 롯데카드에서 국내 1위 통신사의 유출 정보보다 약 20배나 많은 데이터가 유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급격히 불어나자 대통령실도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전국 국가안전보장 3차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직접 받고 “잘 챙겨 보라”는 취지의 당부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8일 관계 기관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롯데카드 해킹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커 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빠르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킹 사고 경위, 고객 보호 방안 등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조직 효율화 작업에 나서야 보안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격으로 해킹이 더 첨예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분산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해킹에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우석 wskang@donga.com·신규진·주현우 기자
▶A3면에 관련기사

“트럼프 내달 경주 APEC 참석”… 시진핑도 방한 협의

美대사대리, 트럼프 방한 공개 언급
조현, 中왕이 만나 접참석 재차 요청
13년만에 美中정상 동시 방한할 듯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7일 “한미 정상 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획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PEC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3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 동시 방한이 유력해졌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 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경주 APEC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구제화한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중 관계 발전이 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조 장관은 김포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이 확

정되면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국제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참석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한국을 찾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전후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9일(현지 시간) 통화할 것으로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A5면에 관련기사



中 왕이 만나 조현 외교장관 1박 2일 일정으로 1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양국 외교장관 대면 회담에서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한을 당부했다.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A5면에 관련기사

‘원조 친윤’ 권성동 구속… 불안에 떠는 국힘

3대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 확보
국힘 의원 추가 수사 강도 높일 듯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내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되면서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을 더욱 강하게 옥죄는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장동혁 대표는 17일 오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

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좌인 시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 이후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추경호 김진교 임종득 의원 등이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jkim@donga.com·손준영 기자
▶A6면에 관련기사

트럼프 “반도체 관세, 車보다 더 낼수도”

의약품도 거론 “이익률 더 높아”
‘50% 관세’ 철강 품목 확대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반도체나 의약품은 (관세를) 더 낼 수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의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해 관련 품목에서 25%의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고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일본 등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으로 타협하면 미 자동차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한국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對)미 수출 2위 품목이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에서 최

국 대우 원칙을 밝혔지만 이를 확정하는 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또 이날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 제품 부문에서도 관세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을 모색 중인 것이다.

한편 미국과의 추가 협상자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인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A4면에 관련기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젠, 마시는 단백질 알부민(Albumin)

영진약품



늘 피곤하십니까? 알부민 부족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

마시는 단백질 영진약품 『슈퍼 알부민 600 VIP』

- 피곤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 기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으십니까?
- 늘 피곤하십니까?

→ 알부민 부족 아닐까요?

알부민! 70년 전통의 제약회사 영진약품에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실크 알부민 150,000mg, 사슴태반 가수분해물 150,000mg

「슈퍼 알부민 600 VIP」로 영양과 활력을 동시에...

- 늘 피곤이 풀리지 않으신 분
- 체력과 기력 보충이 필요하신 분
-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으신 분
-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건강과 활력이 필요하신 분
- 피곤함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
- 운동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
- 활력이 약해 체력유지가 필요하신 분



영진약품 『슈퍼 알부민 600 VIP』 출시기념 60% 특별할인판매

1세트 (20ml × 30병 / 1개월분) 300,000원 → 118,000원

2세트 (20ml × 60병 / 2개월분) 18,000원 추가할인 218,000원

3세트 (20ml × 90병 / 3개월분) 56,000원 추가할인 298,000원

※주문 폭주로 인하여 배송기간은 3~7일 소요됩니다.

문의전화 1800-4700 각종 신용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

www.mitzvah.co.kr (주)홍소핑코리아 전국 어디든지 무료배송